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신 교회

대구동흥교회는 1955년 11월에 설립예배를 드리고, 올해 11월에 창립 60주년이 되는 교회다. 60년의 짧지 않은 역사는 파란만장(波瀾萬丈)한 풍량을 헤치기도 하고, 은혜의 망망대해(茫茫大海)를 항해하기도 했다.

대구동흥교회의 건물은 그 역사를 잘 보여 준다. 현재 대구동흥교회 본당 건물은 1970년 1월 28일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全燒)된 이후 건축했다. 45년이나 된 고색장연(古色蒼然)한 건물이다. 그러나 교회 내부는 리모델링이 돼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거기다가 주 출입구 역할을 하는 곳은 새로 신축된 5층짜리 비전센터 1층 카페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본당과 연결돼 있다.

저력(耐力) 있던 교회 vs. 허리가 없는 교회

대구동흥교회는 60년이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적지 않은 부침(浮沈)을 경험했다. 1970년 1월 28일에는 교회 예배당이 화재로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1976

년 성주계정교회를 개척하고, 1981년 8월 9일 방촌중앙교회를 개척할 만큼 영적인 저력이 있는 교회였다. 대학청년부가 100여 명이나 모이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두 차례나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2000년대 초반 12년간 사역하던 목회자가 120여 명의 핵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 개척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교역자들까지 모두 개척한 교회로 갔다. 교회 1호 파송선교사도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계로 연결됐다. 교회에 남아 있는 목회자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남겨진 성도들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근간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시험이 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여진을 겪는다. 이후 부임한 목회자도 독일에서 구약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었는데, 2년 반 만에 사임하면서 8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나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 이후에 부임한 목회자도 4년간 사역하



김무곤 목사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albot 신학교(Th.M.)를 졸업했다.
제자훈련의 산실 부산호산나교회에서
10년 이상 사역했으며,
현재 대구동홍교회 담임목사와
대구 CAL-NET 총무로 섬기고 있다.



다 사모님이 소천하는 바람에 교회 사역을 내려놓았다.

이런 과정들로 인해 교회 사역을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감당해 줘야 할 허리가 부실해지게 됐다. 영적인 허약함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 교회의 영적 리더에 대한 불신과 사역을 감당할 젊은 세대가 단절돼 버린 교회 상황에서 김무곤 목사가 부임하게 됐다.

제자훈련에 그을린 교회

김무곤 목사가 대구동홍교회에 부임할 때 호산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최홍준 목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그을린 교회다. 제자훈련 목회를 접목하기 정말 어려울 거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가 없지만, 겉으로는 제자훈련에 실패한 교회니까 잘해야 한다.”

대구동홍교회는 제자훈련을 열심히 접목했던 목사님이 120여 명의 핵심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아픈 역사가 있는 교

회였다. 성도들의 호응이 있어 제자훈련 스타일로 바뀌 보려고 급하게 서두른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변화됐는데, 성도들의 속은 변하지 않은 것에 절망을 느껴 교회가 붙잡았는데도 떠나 개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분열과 아픔이 떠올라 성도들 대부분이 훈련에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즉,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자훈련에 대한 패배감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였다.

김무곤 목사가 청년부 사역을 하던 호산나교회에는 준비된 평신도지도자들이 ‘너무’ 많았지만, 반대로 김무곤 목사가 부임한 대구동홍교회는 제자훈련으로 군사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대다수였다. 준비가 돼 사역에 파송하더라도 너무 지치고 탈진한 상태라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역에 소극적인 상황이었다. 윗세대는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안 따르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중간 세대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사 개입

김무곤 목사는 2008년 12월 7일, 대구 동흥교회의 7대 목사로 부임했다. 김목사는 성결교회에서 자라나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공부한 목회자다. 대구는 대학시절 친구와 무전여행을 가 본 경험이 전부인 전형적인 부산 목사다.

그는 일찌감치 미국 탈북신학교로 유학을 가 성경주해 과정을 공부하며 평생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배웠고, 호산나교회에 부임해 최홍준 목사와 함께 뜨겁고 순수한 교회 성장의 주역으로 현장에서 헌신한 목회자다. 원래 김목사는 강단 사역, 말씀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지, 제자훈련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자훈련 토양의 호산나교회로 보내셔서 제자훈련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론이나 강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자훈련 분위기와 소그룹 분위기를 경험하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다. 신학이나 말씀은 신학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목회에 대한 모든 것은 호산나교회 현장에서 배웠다.

대구동흥교회는 후임 목회자를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호산나교회에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청빙 요청을 진행하던 중에 전국장로수련회를 부산으로 다녀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호산나교회에 들러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어느 목사님이 좋으세요?”라고 질문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 같이 김무곤 목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사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 그랬기에 성도들은 지금도 김무곤

목사를 하나님께서 대구동흥교회로 보내셨다고 확신한다.

사실, 김무곤 목사는 대구동흥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호산나교회 청년부를 5년 반 동안 담당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스스로 “나는 지성적인 말씀을 전하면 정말 잘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구동흥교회의 상황은 김목사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김무곤 목사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분열된 교회의 역사나 허리가 무너져 내린 교회 상황은 부임이 결정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구동흥교회와 김무곤 목사와의 만남은 ‘믿음 좋은 성도’와 ‘믿음 좋은 목사’의 만남인 것이다. 김목사는 가끔 한 번씩 “기도 작고 불품없는 부산 목사를 선택해 주신 것을 보니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토양 작업

하나님께서 김무곤 목사를 청빙하시면서 사전에 토양 작업을 진행하셨다. 교회가 두 번째 어려움을 겪고 80여 명이 분리돼 나갈 때 12명의 장로들도 동반 사임을 했다. 젊은이들의 요구와 교회의 입장에 충돌이 생겼을 때, 12명의 장로들은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했으니 교회를 위해서라면 장로직을 내려놓겠다”라며 당회가 기능할 수 있는 2명, 곧 서기 장로와 제일 젊은 장로만 남고 모두가 사임했다.

두 번의 교회 분리로 인해 허리도 부실해졌지만 기성세대도 하나님께서 함



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 장로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김무곤 목사가 부임할 때 다섯 명의 시무장으로 모두 50대 초반이었다. 김무곤 목사에게는 형님뻘이었지만, 말이 안 통할 세대는 아니었던 것이다.

존경과 섬김과 이해의 대상이지 토론의 대상, 설득의 대상이 되기에는 쉽지 않은 할아버지뻘이나 아버지뻘 되는 시무장로들과 함께 사역해야 했다면 당회원들이나 담임목사나 더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또 교회의 변화도 더뎠을 텐데, 교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토양 작업을 해 놓으셨기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변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김무곤 목사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교회에 부임한 이후, 기본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서는 문제를 더 자극하지 않으려고 강단에서 예민한 본문을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 가시 많은 생선을 먹을 때 뼈를 발라내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처럼 돼 버린다. 말씀을 말씀대로 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요원해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 목회가 제대로 자리 잡은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강단 사역이다. 제자훈련을 받은 순장들이 목회자의 말씀 사역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깊은 은혜의 샘에서 길어낸 영적인 양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동역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김무곤 목사도 부임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를 지향했다. 이는 목회자도 말씀 아래에 서겠다는 의미이며, 말씀에 매이겠다는 뜻이다. 말씀에 지배를 받아 목회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무곤 목사는 강단에서 본문 이야기만 하고,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라면 가감 없이 강력하게 선포한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전통, 권위, 겉치레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초지일관 강조한다. 말씀이 가라하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알려 주는 대로 전하는 기본기 목회를 통해 교

회는 조금씩 본질을 회복하고,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래된 빙하가 봄바람에 조금씩 녹듯 녹아내렸다. 말씀이 성도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은혜의 온난화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2008년 말 부임 이후 2009년부터 전 성도를 대상으로 새가족반을 운영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모든 성도가 5주간 필수적으로 새가족반 과정을 받게 했다. 이후 매년 1~2차례 담임목사가 직접 새가족반을 인도하고 있다.

새가족반을 수료한 한재천 집사는 이렇게 소감을 밝힌다. “흐릿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명쾌하게 해결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영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한다. “처음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생각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지만 하나님만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한다. “주일예배를 드리면 집에 가서 쉬곤 했었는데, 새가족반에 참여하면서 잊고 있었던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았습니다. 또한 대구동홍교회의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가족반이라는 필수 과정을 수료한 후 양육과정한 강좌를 들으면 제자훈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양육 과정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영적 성장의 길”(13주), “큐티학교”, “신구약파노라마”, “성경본문반”,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어, 성경이 읽어지네”(12주).

임계점을 지나다

김무곤 목사는 말씀 사역과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과 함께 리더십 그룹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집중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도서출판 디모데)를 갖고 당회원들과 함께 수요일

목회자가 자기 목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 주자 성도들도
목회자를 더 신뢰하게 됐고,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됐다.

저녁에 모여 6개월간 북스터디를 진행했다. 각 장을 읽은 후, 질문을 던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어디를 지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2010년부터 남자 10명, 여자 7명의 피택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접목했다. 5년이 흐른 지금은 제자훈련 1기 수료생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분들 중 60%가 예전에 이미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런데 다시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훈련에 그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훈련 불꽃이 옮겨 붙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매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계속 접목해 온 대구동흥교회는 2015년에 제자훈련 사역의 전환점을 맞는다. 최초로 모두 담임목사보다 어린 훈련생들이 훈련에 지원한 것이다. 2015년 현재 제자훈련은 4기 48명이 수료했고, 사역훈련은 3기 38명이 수료했다.

김무곤 목사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연말마다 교사의 70~80%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 일꾼을 찾는 문제가 큰 숙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 자원이 견고하게 갖춰진 상황이다. 김무곤 목사가 부임했을 때는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구역장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됐다. 김무곤 목사가 지향하는 바대로 '훈련을 통해 강한 주님의 군사로 무장하는 교회'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 건강의 청신호가 들어오다

기본을 따르며 충실히 목회해 온 결과 교회의 기초 체력이 보강되기 시작했고, 내적 결집도와 더불어 헌신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비전센터 재건축이다. 대구동흥교회는 현재 비전센터가 위치한 자리에 2층짜리 허름한 건물을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심 김무곤 목사는 그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평소 '건축은 어쩔 수 없는 건축이어야 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었던 김 목사는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관을 리모델링하자"라는 정도의 제안만 내 놓았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들에게서 "리모델링할 거라면 차라리 새로 지읍시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때가 부임 4년차였다.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 '제자훈련에 불이 붙은 교회'를 세우고자 묵묵히 한 길을 걸은 제자훈련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고도 2년 정도의 시간을 더 기다려 부임 6년차 4월에 준공됐다.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결혼하면서 대구동흥교회로 옮겨와 32년째 섬기고 있는 김수남 권사(67세)는 지난 대구동흥교회의 역사의 산 증인 중 한 명이다. 김 권사는 1990년 30대 초반에 제자훈련을 받아 신앙을 정립한 이후 결단하고, 한 길만을 가는 순례의 여정을 밟으며 정신없이 은혜로 살아왔다. 김 권사의 말을 들어보자.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선교센터를 짓고 나니 비전센터는 건물 하나일 뿐인데 교회 수준을 높여 주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동흥교회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우리 교단 첫 번째 교회고,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김무곤 목사도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한다. 목회자가 자기 목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여 주자 성도들도 목회자를 더 신뢰하게 됐고,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게 됐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축 현금 10억 원을 걱정했는데, 걱정된 10억 원 모두 성도들의 현금으로 마련됐다. 제자훈련을 통해 그만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다. 대구동흥교회에서 19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미경 집사(49세)는 2012년에 제자훈련, 2013년에 사역훈련을 받고 구역장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

이 집사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제자훈련 과정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격상 시작하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나고 나니 그때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든든한 힘이 됐다”라고 고백한다. 이미경 집사도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갚아가는 상황이었지만,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데 남편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은행대출이 18억 정도 남아 있었다. 2016년 8월부터는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동흥교회는 빚을 져 본 적이 없는 교회라 성도들의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2015년 연초에 구좌 현금을 하자고 해서 결의했는데 ‘월 400~500만 원 정도라도 나오겠는가’ 하고 염려했지만, 매월 1,000만 원씩의 구좌 현금이 작성됐다. 일순간에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된 것이다. 당회원도 놀라고 목회자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랐다. 이를 통해 교회의 건강도와 안정감이 상당히 높아졌다.

믿음과 성장의 상징 : 비전센터

비전센터 1층에 있는 ‘N. Bridge’ 카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Bridge)다. ‘N’은 ‘new’, ‘next’(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N. Bridge’ 카페는 지역의 불신자들도 많이 이용한다. 그로 인해 교회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 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우체국장은 “대구동흥교회가 이 지역의 품격을 상향조정해 줬다”라고 말한다.

비전센터 2층에서는 ‘다니엘 수학교습소’라는 유료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다니엘수학교습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공순선 집사(46세)는 2012년 제자훈련, 2013년에 사역훈련을 수료했다. 영재원에서 비싼 교





구를 활용해 수학을 가르치던 사
공순선 집사는 매주 토요일에 교회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며 5년

간 섬기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방을 등록해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이왕이
면 공부를 통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교육에
서는 신경 쓰지 않는 신앙의 인격을 길러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됩니다.”

일반 학원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저렴한 수업료를 받으며 공부방을 운영하고, 공부방을 책임지는
사공순선 집사도 학원에 비해서 60%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고 있다. 이 모두가 넓게는 제자훈련
이 가져다 준 열매 가운데 하나다.

비전센터를 세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자 2014년부터는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오고, 부
모가 따라서 등록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비전센터 5층에서는 ‘탁구클럽’이 운영되고 있어서 믿지 않
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있다. 그야말로 비전센터가 지역사회와 교회, 불신자와 하나님, 세대와 세대의 가
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견디라, 막아내라

김무곤 목사는 부임 초기에는 하루하루 열심히만 사역했다고 한다.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하나님
께서 나를 대구동흥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고 한다. 그때 깨달은 것이 “막
아내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맺집이 좀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인정합니다. 하
나님께서 돌아가시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고, 죽으라 하면 죽
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오리나 숙명을 통해 거절할 수 없는 사인을 주시기 전에는 보내신 곳
에서 버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회는 없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성벽을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김무곤 목사는
점령군처럼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다. 성도들의 준비 상태와 필요
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들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세워 주는 부모 같은 목회를 하려
고 애썼다.

교회 토양은 100인 100색이다. 말씀 사역과 제자훈련 사역이 중요한 축이기는 하지만, 대구동흥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말씀의 원리, 제자훈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교회 속에 녹이고 결합시켜

대구동흥교회 현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목회했다.

김무곤 목사는 당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가벼운 반대는 설득하고, 반대가 심하면 기다린다. 그것이 당회원들의 마음을 이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꼭 이루려는 부분은 시간이 들더라도 기다려 가며 소신껏 이야기하는 편이다. 또한 공식적인 회의 전에 사전 설득, 개인 접촉은 거의 하지 않는다. 사전 공감대는 강단 사역과 훈련 사역과 같은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 공유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성도들이 바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공유되면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김무곤 목사는 성도들에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서 먹살 잡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자주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런 말을 해도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응급 목회’를 감당하기보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 목회’를 하는 것이다.

미리부터 성도들에게 원칙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려 주면 “교회가 좀 더 고상하고 목적지향적인 곳이구나!”, “우리의 모습이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설령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원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 목회 vs. 제자훈련 목회로 특화된 목사

제자훈련으로 그을린 전통 교회에 7년째 제자훈련 목회를 접목하고 있는 김무곤 목사는 아직 이 둘을 놓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아직 교회는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은 현 상황에 나름대로 맞춰 가면서, 제자훈련 목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행히 김무곤 목사는 2014년에 최홍준 목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최 목사는 “대구에서 6년 버틴 것은 대단하다. 대구동흥교회에서 버틴 것이 대단하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격려해 줬다고 한다.

호시우보(虎視牛步)를 기대하며

대구동흥교회는 현재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 목회자와 성도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구축됐고, 말씀을 기초로 한 탄탄한 믿음의 기초 체력을 키운 상태다. 지역사회 주민들도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교회 문턱을 넘어오고 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나은 그림이 그려질 것이 분명하다.

김무곤 목사는 이번 취재를 통해 지나온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상대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도도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자연적 교회 성장(NCD)을 신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김무곤 목사는 40대 후반의 젊은 목회자다. 40대 초반 부임해 오롯이 젊음을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헛되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복한 취재였다. 

〈박주성 목사〉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성도들이 바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공유되면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게 된다.

